

담양군, 저지방한우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차별화된 한우 브랜드 육성 상황·향후 계획 공유

담양군은 최근 담양시 창조농업의 일환으로 한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단, 순천대 교수, 컨설팅 업체, 관련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간 거리 확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점검, 소독 실시 등 충분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성공을 위해 일반한우와 저지방한우 브랜드육에 대한 소비자 대상 인지도 평가, 참여농가관리방안, 전략 수립에 대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앞으로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사업단은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저지방한우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브랜드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저지방한우는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지만 담양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건강하고 차별화된 저지방한우 브랜드를 통해 새로운 한우시장 개척과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 19억 원을 확보,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한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테마수국길 건강 걷기 성료

구례수목원서 100여 명 참석...95품종 다양한 수국 식재



구례군은 2일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전남 제1호 국립수목원인 구례수목원에서 '10만 송이 테마수국길 건강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구례군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군의회의원, 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에 행사를 시작하여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절차는 간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참여인원을 제한했다.

구례수목원 일원에 조성된 약 2km의 테마수국길, 외국화목원·기후변화테마원 등 주제원에 식재된 10만 송이의 수국은 아나벨 수국, 떡갈잎 수국, 미국수국, 산수국, 목수국 등 95품종의 다양한 수국이 식재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구례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한 구례수목원에 많은 방문객들이 수국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며 "이번 행사와 적극적인 SNS 홍보로 수목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전달과 편의를 제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화순 정수장, 환경부 실태점검 결과 '이상 무'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현황 점검' 결과, 화순군 정수장은 안전한 수돗물로 합격점을 받았다.

화순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447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화순군은 춘양정수장, 청풍이양정수장, 백야정수장, 동복정수장이 점검 대상이다.

환경부는 운영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고 특히, 원수에서 정수까지 공정별 유충 서식 여부 조사를 통한 유충 유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화순군 정수장 조사 결과,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고 위생과 청결 상태도 좋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박순철 기자

군은 최근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수장 4곳의 원수, 여과수, 정수 수질계측기 유입부에 분기 배관과 필터를 설치하고 매일 1회 이상 공정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군청 누리집에 '수돗물 유충 발생 관련 상황판' 배너를 게시해 주민들이 수돗물 유충 발생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주시, SRF품질검사 "과정·결과 투명 공개해야"

공정성·투명성 확보 중요... 복수 조사기관 참여·행정·시민 등 참관 촉구



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고헤연료제품(SRF) 품질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 참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난방공사는 지난 1일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에 나주SRF열병합발전소에 반입된 SRF 품질검사를 의뢰,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찬균 나주시장은 2일 오전 발전소를 방문, 법과 원칙에 따른 SRF의 투명한 관리와 검사 결과 공

개를 난방공사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 부시장은 공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달 장성 아적장 긴급 점검을 통해 드러났듯이 발전소 가동에 투입되는 SRF의 품질 적합성에 대한 지역사회 불신이 매우 팽배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질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복수 조사기관 참여와 행정과 시민, 언론 등의 참관,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주시는 지난 달 15일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로 만든 비성형 SRF를 야적, 보관중인 장성군 복합물류터미널을 긴급 방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SRF터미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침출수와 약취 등 부실한 관리 실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난방공사는 지난 2017년 SRF제조 당시 첫 품질검사 실시 이후 3~4년 간 최소 11차례 내지는 최대 15차례에 달하는 의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5)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고헤연료제품 사용자가 보관 중인 SRF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절차와 검사 주기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주시는 점검 당일 공식 입장을 통해 부적절한 SRF사용에 따른 난방공사의 발전소 가동 중단과 비성형SRF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를 촉구했다.

기동취재본부

장성군, 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129면 확보

대창동 공영주차장 39면 완공...기존 주차장(90면)과 상권 활성화



장성군이 최근 읍시까지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대창동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매듭지었다. 군은 총 3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군민에게 새롭게 개방했다.

장성을 공영버스터미널 주변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상시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데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지역민과 상가 이용객들의 불편이 컸다.

기동취재본부

이에, 장성군은 해당 지역에 총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39면(부지면적 2004㎡)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낡은 주택과 상가 건물들을 철거해 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했다.

앞선 2020년, 장성군은 군비 포함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터미널 인근에 9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다. 이번 대창동 주차장 완공으로, 공영버스터미널 인근에는 총 129면의 넉넉한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상가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곡성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자율방재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각 지역의 저수지 예찰활동에 대한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과 긴급 대처 요령에 대해서도 상세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진행하며 방재단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재난 사전 예방활동, 재난 발생 시 현장복구 등 방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 방재단이 자연재난에 최적의 대응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